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verseas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 Organization

김효선(hyosun Kim)¹, 김지현(Jihyun Kim)²

E-mail: fromm2023@gmail.com, kim.jh@ewha.ac.kr



논문접수 2019.10.22
최초심사 2019.10.25
게재확정 2019.11.11

ORCID

hyosun Kim
https://orcid.org/0000-0002-5166-6756

Jihyun Kim
https://orcid.org/0000-0003-0209-4365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현재 국내의 기업 기록관리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곳은 있을지라도, 어떠한 외부의 조직도 기업기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을 조직 형태와 기능적 역할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을 해당 홈페이지와 문헌 연구,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 조직들은 분과 및 독립 조직의 형태로 설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전문가조직의 조직구성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판활동의 기능적 역할을 제언하였다.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업 기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략 수립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설립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t present, no outside organization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business archives, even though there are companies that operate their own. To resolve thi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overseas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organization could apply in Korea by analyzing the form of organizations and functional roles. As such, the organization of professionals in overseas business archives was analyzed through their website, literature research, and email interviews of the staff. Based on the analysis, overseas organizations of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were established in the form of sections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to systematically support business archives through long-term projects. Thus, this study proposed a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rofessionals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business archiv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supporting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publishing activities. In addition, the ultimate development of business archives is clearly no longer the only solution to the change in perception and strategy of individual companies' business records. Moreo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or organizations.

Keywords: 기업 기록,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
Business Records,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Organization

<http://ras.jams.or.k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법률의 제정은 기록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 학문의 정립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설, 학회의 설립 등의 발전을 가져왔다(정연경, 2011). 이후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로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공공기록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영역은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 프로세스, 실무자들의 사례연구 등을 오가며 미시적 차원의 연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학 분야는 20년간의 짧은 기간에 비해, 총론에서 각론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해당 학문과 실무의 발전은 관련법이 지향하고 있는 공공 기록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기록과 조직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록을 조직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일례로 기록을 정보자산(information asset)으로 인식하는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2013)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 원칙을 다루는 ISO 15489 표준(2016)이 최근 개정되었다(이철편, 2016). 이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관리의 이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기록을 다루는 해당 조직이 기록의 개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이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개념에 대한 변화의 시발이 되었던 ISO 30301이 기존 표준이나 지침과 크게 다른 점은 일률적인 기록관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록관리를 위해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뿐, 기록관리의 양상은 조직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가속화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기록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보와 기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대신 해당 조직이 기록으로 정하기로 한 'Evidence(증거)'로서의 정보를 현대의 전자환경에서 어떻게 획득해 내고 관리해 내야 하는가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이철편, 2016). 여기에 더해 김명훈(2017)은 오늘날 기록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기록이 업무의 부산물이 아니라 조직의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의 개념에 대한 변화'와 '해당 조직이 기록으로 정하기로 한 증거로서의 정보'를 관리하는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기록관리 분야 중 하나는 기업 아카이브(business archives)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표준국어대사전, *n.d.*)이며, 기업 아카이브는 기록을 다루는 개별 기업의 행위와 속성에서 생성된다. 결국 기업 아카이브는 개별 기업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자신들이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기록으로 정하기로 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의 발전이 일률적인 법의 테두리, 즉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right)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반해, 기업의 기록관리 영역은 어떤 판단

이나 인식상의 가치인 타당성(feasibility)을 기초로 조직의 경영활동과 외부와의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전시켜야 할 분야인 것이다. 적어도 기업 아카이브는 법적인 테두리나 제재 없이 오로지 자사의 필요성과 자발적인 실행력으로 기록관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최근의 기록관리 환경의 흐름에 맞춰 아카이빙을 실천함으로써 기록을 자사만의 독특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활동이나 실무에서도 국내의 환경을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환경을 살펴보면 기업 자체에(in-house) 설치된 개별 기업 아카이브의 발전과 활약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업 기록관리와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관련 전문가조직이 단연 눈에 띈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의 기업 아카이브 분과(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와 미국 기록전문가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의 기업 아카이브 분과(Business Archives Section, BAS), 영국의 기업 아카이브 협의회(Business Archives Council, BAC),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기업 아카이브 협의회(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 일본의 기업사료 협의회(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 등 ICA와 일부 선진 국가에 협회의 분과나 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전문가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아카이브의 개념이 대두되어 사료(史料) 관리, 사사(社史) 편찬, 디지털 아카

이브 운영, 역사관 건립 등의 형태로 기업의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실무뿐 아니라,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여러 방면의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단순히 비용 최소화를 통한 이익의 최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조직의 성과를 임직원 및 사회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기업 기록관리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곳은 있을지라도, 어떠한 외부의 조직도 기업 기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기업 기록이 갖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기록의 관리는 온전히 기업의 몫으로 넘기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김유리,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과 기능을 살펴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조직 설립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개괄적인 문헌 연구와 함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미국 기록전문가협회(SAA)의 탄생 배경과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문가조직의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이후, 기업 아카이브의 모범 실무와 기업 기록관리 전략의 공유, 기업 아카이브의 설립과 성장을 독려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을 해당 홈페이지와 문헌 연구,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전문가조직의 조직 구성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판활동의 기능적 역할을 제언하였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 국내에서 발간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해외 기업 아카이브의 사례연구,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기초연구, 비현용 및 현용 기업기록관리의 전략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외 기업 아카이브의 사례 연구로, 김익한 외(2000)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기록 관리의 목적과 역할을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의 기업 기록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 기록 문화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김영애(2003)는 기업아카이브즈 문화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나라인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독일이 기업 아카이브즈라는 하나의 기록관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관리의 틀 속에서 경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시사점을 두었다. 김금이(2008)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기록관리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프랑스 생 고뱅(Saint-Gobain)의 사례를 제시하여 한국 기업 기록관리 정착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서진(2008)은 북미지역 기업 아카이브의 역할 변화를 서술하고, SAA에 등록된 북미지역 기업 아카이브 1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김유리(2009)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 기록의 가치변화를 고찰한 후,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리방안을 제언하였다.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론 및 원칙 등에 관한 기초연구로, 남재우, 김장환(2018)은 'business archives'의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검토와 함께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문제점과 현황의 현실적 진단을 통해 향후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실제 보존기록 기록관리 사례를 소개하여 이론적 논의의 이해를 도왔다.

그 밖에도 기업의 비현용 기록 및 사료 관리에 대한 연구로는 각각 사사(社史) 편찬(김재남, 2002; 최정애, 2005), 사료관리시스템 도입(김화경, 2006), 사료관리전략 수립(임종철, 2007)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기업 기록의 현용 기록에 관한 연구로는 기업 기록의 지식자원화를 위해 지식관리와 기록관리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정기애, 남영준, 2007), 특정기업의 기록물관리 체계 분석(고선미, 2002; 박용수, 김태수, 2011), 기업의 전자증거개시를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설문원, 2015; 설문원, 이해인, 2016)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외의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여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와 의의를 전달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 연구에서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의 개괄적인 소개와 기업 기록의 역사적 측면에서 사료로서 관리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

었다면, 점차 기업의 기록이 경영상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현용 기록을 포괄하는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장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제에는 기업 기록관리와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발전 방안을 기업 내부의 인식 전환과 관리 전략의 수립에서 나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기록관리학의 발전이 법률 및 제도의 제정, 학문의 정립 및 인력 양성, 학회 및 관련 조직의 설립 등의 다양한 인프라 기반 위에서 다져져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기업 아카이브의 발전 방향 역시 기업 내부의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적 차원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업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서 의미하는 민간 기록물의 일부임을 생각해볼 때, 이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지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2.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기업(business)'과 '보존기록/보존장소(archives)'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기록학용어사전(한국기록학회, 2008)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 이에 반해 SAA 용어사전에는 'business archives'라는 용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영리기업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

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SAA, n.d.a). 이와 함께 영국 국가기록원(TNA)의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England and Wales)』(2009)에서도 'business archives'를 '기업과 수집형 보존소가 상업적, 법적, 역사적 이유로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선택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TNA, 2009a). 이처럼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마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아카이브는 기록관리 분야의 한 장르이자 갈래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SAA 용어사전에는 'archives'의 하위어(Narrower Term) 중의 하나로 'business archives'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business archives'에 대한 정의는 모두 기업의 보존기록에 중점을 두고 정의하였지만, 본래 '보존기록/보존장소'에 해당하는 'archives'의 정의와 속성에 기인한다면 '기업 아카이브(business archives)'는 기업의 기록(records/archives)으로서의 의미와 기업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repository)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아카이브'의 의미를 이 같은 광의의 차원에서 다뤘으며 다만, 기업 기록으로서 기업 아카이브와 장소로서의 기업 아카이브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 기업 기록 및 기업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기업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 곧 기업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기록이 갖는 의미 또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기업이 단순히 자국의 한 지역 경제, 시장에만 속해 있는 소규모 경제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세계에 있어 기업은 자국 사회 발전의 선도

적 위치에서부터 국제사회적 교류와 변화, 나아가 국제정치, 외교의 한 측면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Hidy(1966)는 삶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사회적 변화의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정책과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 단일 그룹으로 기업만한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업과 기업가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업 기록의 보존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이 왜 기록을 관리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북미의 경우, 1925년 하버드 대학에 기업 기록을 연구하기 위한 단체인 기업 역사학회(Business Historical Society)가 설립되었고 1943년 Firestone Tire and Rubber Company가 처음으로 기업 아카이브를 설립하였다. 초기 기업 아카이브는 기업 내부에서 생겨난 역사적 필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기업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요구로 기업 기록관리는 점차 발전되었다(주서진, 2008).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기업이 시장 주체로서 입지가 커지고, 기업 경영을 위한 기록관리는 기업 생존 전략의 하나로 중요성을 얻게 되면서 기업 자체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특히 초기의 단순한 역사적 차원의 관점을 넘어 기업 기록이 기업의 자산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기록관리 학계 전반에 불고 있는 기록과 조직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부합하기도 한다.

자산으로서의 기업 기록의 중요성은 기업 아카이비스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Wirth(1997)

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업 아카이비스트의 역할은 기업의 역사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중요기록물을 선별하고, 구술사를 채록하고, 사진을 보유하는 등 오래된 자료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연구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동시대의 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Cox(2001)는 기록 전문가들은 왜 기록이 중요한지 미국 자본가들과 다른 기업 경영자들을 설득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기록 전문가들은 역사적 연구 목적을 위한 기업 기록의 수집에서 나아가, 기업과 즉각적으로 관련된 경영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미국 기업의 기업 아카이브의 육성을 지원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기술 및 참조의 전통적인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기록 시스템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ICA-SBL이 발간한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고서(2004)에 따르면 기업 기록관리와 기업 아카이브의 구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없다. 단지 민간 아카이브(private archives)에 관한 법률 분석을 통해 극히 일부 국가만이 국가유산의 일부로 기업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590여개의 기업과 기업협회 등이 SAA의 BAS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Fortune지가 선정한 미국 최대 기업 명단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업이 자신의 유산과 브랜드 이력을 활용하거나 장기적 사업 가치를 지닌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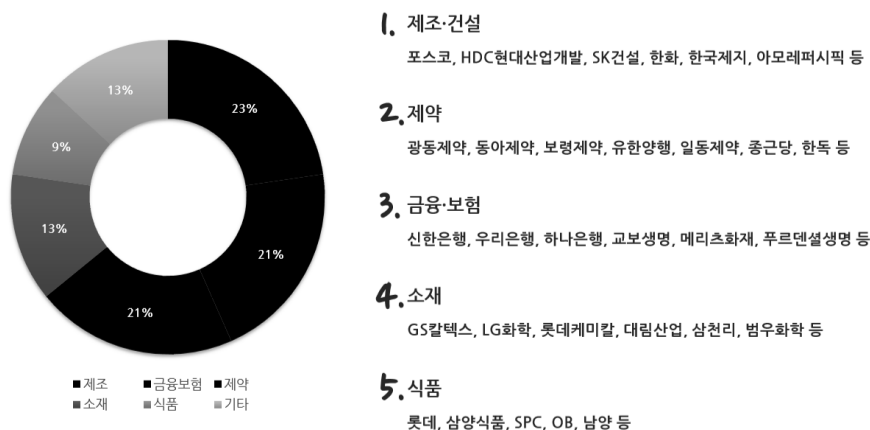
에 대한 접근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키비스트를 고용한다(Tousey and Adkins, 2007)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익 요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의 기업 아카이브는 공공기관과 달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유무와 기록 관리 등의 현황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는 기업 아카이브가 공공기관의 기록과 달리 접근(access) 및 활용 개념이 달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법적인 관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해외의 경우처럼 전문가조직에 의한 현황 파악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에 대해 Tousey and Adkins(2007)는 기업 아카이브는 대중에게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업 아카이브 관리자 등은 외부의 요청보다 기업 내부적인 요구를 우

선시하면서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그들의 경영 목표에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학술적인 요청 등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들의 기록을 개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 기록은 공공영역의 기록처럼 단순히 ‘공개’(open)이나 ‘비공개’(close)의 관점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파악하였듯, 현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기업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외부로 홍보 또는 공개되어 확인 가능한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다음 현황은 국내 기업의 전체 모수에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나 홈페이지, 오프라인 역사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 아카이브의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그림 1> 기업역사기록관리 현황

출처: 이현용 (2019). 기업역사기록관리 사업사례, 한국기록학회 제128회 월례발표회, p. 2.

미가 있다. 추가적으로 저자에게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아카이브 운영이 확인 가능하고,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54개였으며, 분야별 수치는 위와 같다(이현용, 전화문의, 2019.11.08.). 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 아카이브는 공공영역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기록관리의 미개척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의 훌륭한 자산인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록관리 관련 학계와 협회, 그리고 기록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남재우, 김장환, 2018).

이처럼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외부의 전문가조직이 더해진다면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외 기록관리학계 성과를 돌아켜볼 때, 기록 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성과 중 하나였던 전문가 협회의 조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출범은 해당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뚜렷한 사명 의식과 엄정한 직업윤리, 전문성(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 확립을 위해 자발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에 첫 공표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회원 간 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분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세부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1936년 미국의 SAA 출범도 미국역사학회 산하 아키비스트협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이해관계가 분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이현정, 2015)으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

고 가장 큰 국가 전문가 협회로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들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SAA 산하에는 분과별로 아카이브 전문가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BAS가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전문가조직으로 존재한다. 이외에도 ICA, 영국 및 스코틀랜드, 일본에도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전문가조직이 존재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기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해외 기업 아카이브 지원 전문가조직 분석

해외 기업 기록관리와 기업 아카이브에 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주요 국가의 사례와 현황이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미국(김익한 외, 2000; 고선미, 2002; 김유리, 2009; 주서진, 2008), 독일(김영애, 2003), 프랑스(김금이, 2008), 일본(김익한 외, 2000)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업 기록관리와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역사에서부터 유형, 특성에 이르는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전문가조직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시기에 있어서도 최신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최근 남재우와 김장환(2018)의 연구에서는 해외 관련 조직의 활동이 언급되었지만 연구 내용 중 일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분과, 협의회 등의 전문가조직을 조직, 지원, 교육, 출판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지원 전문가조직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ICA-SBL가 발간한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고서(2004)를 기초로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판은 발간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각 국가별로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관련 법, 정의, 기관, 협회 및 조직, 가이드, 참고문헌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이다. 이 가운데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구성국이나, 1934년 영국 런던에 BAC를 설립한 이후 스코틀랜드 내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1960년 BACS를 독립적으로 설립(BACS, *n.d.a*)하였으므로, 영국 BAC와는 별개의 독립 조직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고서가 2004년에 출간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2019년 현

재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각 조직별로 유료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된 홈페이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메일 인터뷰는 2019년 7월 최초 진행 후, 문헌연구를 병행하며 2019년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표 1>은 각 조직의 대표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회신을 보낸 참여자 정보이며, 스코틀랜드 BACS를 제외하고(2명) 각 조직별로 1명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각 조직의 예산 및 인력 등 조직의 현황에 대한 공통 질문과 각 조직의 지원, 교육, 출판활동 등 기능에 대한 개별 질문을 바탕으로 필요 시 새로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통해 조직별로 평균 약 9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밖에 본 연구에는 2004년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의 기업사료협회(BAA)를 추가하였으며, 2007년에 개최한 ‘Japan-U.S. Archives Seminar’에서 일본의 기업 아카이브 현황을 소개한 Matsuzaki(2007)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Matsuzaki는 ICA가 2004년 발간한 보고서에 일본의 현황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ICA 보고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일본의 기업 아

<표 1>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구분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회수
미국 SAA - BAS	前 회장	9
영국 - BAC	운영위원회 위원	8
스코틀랜드 - BACS	기록조사관(surveying officer)	3
	운영위원회 위원	4
일본 - BAA	사무국 담당자	7
ICA - SBA	회장	13

카이브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BAA 홈페이지와 위의 이메일 인터뷰 방법을 통해 조사 내용의 최신성을 보완하였다. 또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관련 조직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기업 아카이브 분과인 SBA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영국의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스코틀랜드의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일본의 기업사료협의회(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5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지원 전문가조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각 분과 및 협의회 조직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각 조직의 설립 목적, 임무, 회원, 운영방식, 예산 등의 전체적인 개요는 3.1절 조직에서 설명하였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각 분과 및 협의회 교육활동을 제외한 행사나 활동내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는 자료 등은 3.2절 지원에서 다루었다. 이어 3.3절 교육에서는 각 분과 및 협의회 컨퍼런스, 워크샵, 연수활동 등을 다루며, 3.4절 출판에서는 각 분과 및 협의회 온/오프라인 출판자료에 대해 기술하였다.

3.1 조직

3.1.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미국 SAA의 46개 분과 중 하나로

서, Lovett Robert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BAS는 1984년 8월 업무 회의에서 1983년에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사명문 초안을 채택하였고, 현재는 개정된 2004년 사명문을 채택하고 있다. BAS의 임무는 기업 아키비스트 및 기타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영리 기관과 비영리 기관 모두에 기업 아카이브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BAS는 회원 서비스와 성장,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교육의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SAA, *n.d.b*; BAS, *n.d.a*).

현재 BAS의 위원(Section officers)은 총 9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차기 회장)1명, 과거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편집국장 1명, 부편집국장(차기 편집국장) 1명, 교육국장 1명, 회원대표 1명, 교신원 1명이며, 2019년 10월 기준 BAS의 회원은 총 593명이다(BAS, *n.d.b*). 특기할 점이라면 부회장을 선거방식으로 선출하여 1년간 부회장으로 지낸 뒤 다음 해 회장이 되는 체제이며, 회장에서 물러나고도 1년간 前 회장 자격으로 총 3년간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게 된다. 부편집국장 역시, 선거방식으로 선출하여 1년간 부편집국장으로 지낸 뒤 다음 해 편집국장이 되는 형식으로 총 2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운영에 연속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2017년에 개정된 별도의 의사규칙(Standing rules)에 의해 정해진다(BAS, *n.d.c*). 또한 BAS 前 회장(이메일 인터뷰, 2019.09.03)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루어지며, BAS는 SAA의 소속 분과로 별도의 사무국 없이 SAA 시카고 사무국에서 협회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을 뿐이

다. 이밖에 BAS의 모든 회원 가입비는 SAA에 전달되며, BAS는 SAA의 분과로서 예산을 할당받아 BAS 콜로키움 및 연례회의, 기타 행사, BAS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3.1.2 영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업 기록의 보존을 촉진하고, 보존 및 현대 기록의 관리 및 관리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 영국의 기업 역사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BAC, *n.d.a*). 현재 BAC의 운영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는 명예 위원(Hon Officers)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재무국장 1명, 사무국장 1명이 있으며, 12명의 일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BAC는 2016년에 개정된 별도의 규정(BAC Constitu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연례 총회에서 다음 해의 명예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BAC, *n.d.b*) 현재 2019년 10월 기준 17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련 학자, 아키비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AC 위원(이메일 인터뷰, 2019.09.13)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연 6회 정도 이루어지며, 런던에 별도의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 운영인력으로는 위원들 이외에도 회의 운영이나 행사 등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BAC의 회원 가입비는 홈페이지에 나열된 BAC의 모든 활동과 목표를 후원하는 데 쓰이며, BAC의 2019년 3월 31일 기준 2019년 예산은 £84,030로 나타났다(BAC, 2019). 예산에는 연구비 및 보조금 지원활동 등을 위해 별도로 조성한 기금이 포함된다.

3.1.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는 스코틀랜드 기업 및 산업 기록의 적극적인 보존과 관련된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아카이브 단체로서 1960년에 설립되었다. BACS는 설립 이후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여러 과업을 수행해왔는데, 현재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전문가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기업 기록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BACS, *n.d.a*). 1977년부터 BACS는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 글래스고 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및 자문 과정에서 민간분야 기업들과 협의를 맺고, 기업 아카이브 기록 조사관(Surveying Officer)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기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TNA, 2009).

BACS의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연례총회에서 해마다 선출되며, 회장 1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명예 사무국장 1명, 명예 재무국장 1명, 명예 편집국장 1명, 기록 조사관 1명, 교신원 1명, 행사담당자 1명이 주요 위원이며, 5명의 위원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BACS의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실시되며, 2015년에 개정된 별도의 규정(BACS Constitu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BACS, *n.d.b*).

한편 BACS의 기록 조사관(Surveying officer)(이메일 인터뷰, 2019.07.05)에 의하면, 현재 BACS의 멤버는 총 120여 명으로, 회원의 8%가 기업 구성원이며, 27%가 기관 회원(도서관 50%(지역도서관 42%, 대학도서관 23%, 국가도서관 32%, 전문협회 3%)), 58%가 개인 회원, 7%가 현재 및 이전 위원회의 구성원인 무료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BACS의 홈페이지는 현재 글래스고대학 홈페이지 내 하위 메뉴

로 운영 중이지만, 별도의 홈페이지로 리뉴얼 후 2020년 대중에게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와 메뉴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협력 자선단체인 볼라스트 트러스트의 홈페이지(ballasttrust.org.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CS의 회원 가입비는 저널과 연례 회의의 인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기업과 연계하는 컨퍼런스, 행사 등의 운영비는 해당 기업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BACS는 별도의 사무국과 운영인력은 없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BACS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BACS 위원, 이메일 인터뷰, 2019.10.01). 이밖에 스코틀랜드 자선단체의 등록 기관인 OSCR(2018)에 따르면 BACS의 2018년 한 해의 수입은 £1,477, 지출은 £1,120으로 나타났으며, BACS의 연간 운영예산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3.1.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일본의 기업사료협회(이하 BAA)는 1981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기업 사료의 사회적·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 사료의 수집·보존·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그 수순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 사료관리, 기업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회사사(會社史)의 편찬이다(BAA, n.d.a).

특히 BAA의 연혁을 살펴보면, 조직의 자발적인 설립과정을 알 수 있다. 먼저 1977년 전문도서관협의회 관동지구협의회 내 회사사 연구 그룹이

발족하여, '좋은 회사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위해 '사내 문서의 수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1979년에는 나카가와 케이이치 로우(中川敬一郎) 도쿄대 교수가 처음으로 독일의 아키비스트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1981년 11월 5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BAA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BAA, n.d.b).

BAA는 회칙(會則)에 의해 운영되며,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 고문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칙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해도 무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원의 자격은 기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기준 기관회원 93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업 및 산업사, 기업사, 기업사료 등을 가진 연구기관·도서관·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회원은 54명이며, 특별회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없다. BAA는 매년 1회 회원총회를 개최한다(BAA, n.d.c; BAA 사무국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2019.10.15.).

BAA 사무국 담당자(이메일 인터뷰, 2019.09.03)에 의하면, 매년 연간 운영비는 약 600만 엔이며, 회비 이외에 한 법인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BAA의 사무국 운영인력으로는 직원 1명, 아르바이트 1명이 있으며, 또한 임원 중 이사들이 자원봉사자로 협의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2021년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 중이다.

3.1.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ICA의 SBA는 ICA의 12개 전문 분과 중 하

나로서, 세계의 기업 기록의 이용과 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BA *n.d.a*). SBA의 이전 명칭은 SBL(Section on Business and Labour Archives)로, 1990년 최초 설립되어 국제적인 멤버십을 유지하며 관련 분야와 활동을 이끌었다. 이후 2014년 10월 기업 아카이브(business archives)에 더욱 집중하고자 분과의 명칭을 바꾸어 현재의 SBA로 운영하고 있다. 새 SBA는 기업 아카이브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촉진,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 전달, 기업 아카이브 관리 지침 개발,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과 이용 장려, 그리고 기업 기록을 보관하는 공공기록보관소와의 협력 등 5개의 임무가 있다(SBA, *n.d.b*).

현재 SBA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은 총 17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0월 기준, SBA의 회원은 기관회원 및 개인 회원을 합하여 총 114명이며 매년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SBA의 운영 규정(Bylaw)은 2004년 SBL 시기에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개정사항이 없어 현재 활동내역에 대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운영규정은 애초 ICA에 의해 ICA의 모든 분과의 운영사항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고, 이 가운데 몇몇 분과는 실제로 예산과 내부 운영체계가 필요했지만, SBA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개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SBA 운영위원회는 2018년 지난 해부터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SBA, *n.d.c*; SBA 회장, 이메일 인터뷰, 2019.08.11).

또한 SBA는 ICA의 분과로서, 회원 가입비를 ICA의 운영기금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엄밀

히 말하면 회원가입비를 SBA의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ICA의 다른 분과들은 ICA로부터 예산을 책정 받지만, SBA의 경우만 별도의 예산이 없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국 운영인력 또한 없으며, SBA 홈페이지는 ICA 파리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의 운영 자금과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회원이 속한 기업의 자금을 후원 받고 있다(SBA 회장, 이메일 인터뷰, 2019.09.01.~02).

이상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조직 개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들 조직은 설립된 지 최소 30년에서 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분과 형태 혹은 협의회 형태의 독립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각 조직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운영규정을 갖추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나 연구 등의 활동에 있어 회원 기업의 자금을 후원 받거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2 지원

3.2.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홈페이지 내 '기업 아카이브 지원 도구(Business Archives Advocacy Toolkit)' 메뉴를 일종의 자원센터로 운영하여, 회원들이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된 계획을 사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BAS는 회원들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완벽하지 않지만, 기업 아카이브 정책을 개발하는 출발점이

〈표 2〉 해외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비교

구분	설립연도	홈페이지	설립 형태	조직				예산 구성 및 활용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원	사무국	
미국 SAA - BAS	1980년	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	분과	- 운영위원회 월 1회 - 총 9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보 1명, 사무국장 1명, 편집국장 1명, 부편집국장 1명, 교육국장 1명, 회원대표 1명, 교신원 1명)	Standing rule (2017년 개정)	회원 593명	- 사무국 X - SAA 시카고 사무국 대표 운영	- BAS 회원 가입비는 SAA의 운영기금으로 전달 - SAA의 예산을 할당 받아 콜로카움 및 연례회의, 기타 행사, 홈페이지 등 운영
영국 - BAC	1934년	businessarchivescouncil.org.uk	독립 조직	- 운영위원회 연 6회 - 총 16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재무국장 1명, 사무국장 1명, 위원 12명)	BAC Constitution (2016년 개정)	회원 175명	- 사무국 O -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원봉사자로 운영	- 2019년 예산 £84,030 - 예산 내 연구비 및 보조금 지원 활동 등을 위한 별도 기금 포함
스코틀랜드 - BACS	1960년	gla.ac.uk/myglasgow/archives/bacs	독립 조직	- 운영위원회 연 1회 - 총 14명(회장 1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명예 사무국장 1명, 명예 재무국장 1명, 명예 편집국장 1명, 기록 조사관 1명, 교신원 1명, 행사담당자 1명, 위원 5명)	BACS Constitution (2015년 개정)	회원 120여명	- 사무국 X -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로 운영	- 2018년 한 해 수입 £1,477, 지출 £1,120(연간 예산은 비공개) - 기업 연계 컨퍼런스, 행사 등의 운영비는 해당 기업의 자급에 의존
일본 - BAA	1981년	baa.gr.jp	독립 조직	- 회원총회 연 1회 - 총 25명(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 고문 2명)	BAA 회칙 (2013년 개정)	기관회원 93명 개인회원 54명	- 사무국 O - 직원 1명, 아르바이트 1명, 자원봉사자(이사)	- 매년 연간 예산 약 600¥ - 한 법인으로부터 운영비 지원 받음
ICA - SBA	- 1990년 최초 설립(SBL) - 2014년 분과명 개칭(SBA)	ica.org/en/section-on-business-archives-sba	분과	- 운영위원회 연 1회 - 총 17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위원 14명)	SBA Bylaw (2004년 제정)	회원 114명	- 사무국 X - ICA 페리 사무국 대표 운영	- SBA 회원 가입비는 ICA의 운영기금으로 전달 - SBA 할당 예산 없음 - 컨퍼런스 운영비, 출판 비용에 한해 회원의 소속 기업의 자금 후원 받음

자, 고려해야할 확실한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AS, *n.d.d*). 구체적으로는, 기업 아카이브를 시작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미국도서관협회(ALA)나 SAA의 가이드와 도구들, 아카이브의 가치에 대한 논문, 회원들의 기업 아카이브 구축 성공 사례, 2013년 BAS에서 주최한 콜로키움 행사의 연설문, 유용한 사이트, SAA에서 지원하는 기업 아카이브 설립과 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BAS는 홈페이지 내에서 '기업 아카이브 자원(Business Archives Resources)' 메뉴를 운영하며 기업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한다. 이 페이지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집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업데이트 되고 있다(BAS, *n.d.e*). 먼저 편집된 자료로, 미국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설문조사(A Survey of United States Business Archives), 회사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방법론(List of Products/Companies for Intranet/Internet Archiving), 회사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관리시스템(List of DAM Systems Used by Corporate Archives)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의 특징은 전자 이메일링 리스트 응용 소프트웨어인 리스트서브(listserv)를 통해 공통된 토론 주제에 의견을 공유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정리한 자료들로, BAS 회원들이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실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SAA는 해당 리스트서브를 통해 분과 회원별로 일일 혹은 주별 메일을 보내어 최신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러한 서비스는 SAA 회원 가입 시 특정 분과를 지정하고 메일 구독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들의 기업 아카이브 브로셔나 카탈로그, 카드, 책갈피 등의 홍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아카이브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록물 접근 정책이나 연구자 지원 양식, 구술채록 발행 양식, 기증 감사증서 양식 등 내부지침 및 양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돕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BAS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간 상호 교류와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기업 아카이브 명단(Directory of Corporate Archives)'은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BAS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된다. 회원 기관 뿐 아니라 역사기록물 자체를 유지하는 기업, 컨설팅업체와 계약해 기록물 수집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 기록을 관리하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 명단은 1997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현재 35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BAS, *n.d.f*). '회원 명단(Membership Roster)' 메뉴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정보로, 회원 이름, 직책, 국적,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제공하는 메뉴 '리포지토리 프로필(Repository Profiles)'과 개별 기업 아카이브에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와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는 메뉴인 '소셜미디어&링크(Social Media & Links)'도 있다. 이들 페이지에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집자에게 보낸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 밖에 BAS는 연간보고서와 연례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매년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하여 회원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 연간보고서를 통해 연례회의에 대한 내용과 분과에서 진행 및 완료한 활동,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연간 수차례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행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영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는 기업 아카이브를 더욱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BAC, n.d.c). 먼저 '워즈워드 상(Wadsworth Prize)'은 매년 BAC가 영국 기업사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책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워즈워드 상은 BAC에서 40년 이상 활동하고 1977년 은퇴한 John Wadsworth를 기리기 위한 연례 대회로 제정되었다(Leckey, 2015).

BAC는 '기업사 연구를 위한 연구비(Bursary for business history research)' 지원도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BAC는 신탁 기금을 설립했는데, 이 기금의 수입은 특정 기업 기록물의 연구를 통해 개인이 연구를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연구비로 지출된다. 연구비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대학원 수준으로 영국 기반의 기업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논문이나 책을 출판할 목적으로 기업사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 학자나 아마추어 연구자도 환영하지만, 다른 기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능력이 부족한 학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연구비 수여자는 이 연구를 토대로 한 짧

은 글을 BAC의 뉴스레터와 웹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출판하는 것도 허용된다(BAC, n.d.d). 2019년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지만, 2020년부터는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BAC 위원, 이메일 인터뷰, 2019.09.13.).

다음으로 BAC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기록물 목록작업을 위한 보조금(Cataloguing grants)'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기업 기록물 목록 작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학문적 또는 사회역사적 가치가 있는 컬렉션을 발굴하며 기업 기록물 컬렉션의 정리와 접근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예술 분야 기업 기록물 목록 작성 보조금 사업을 하였고, 2019년에는 많은 스포츠 사업 관련 기업과 단체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범위를 변경하여, 스포츠 분야를 선정하였다(BAC, 2019e).

또한 BAC는 '기업 기록의 위기관리(Rescue of at-risk business records)'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구성국 중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기업 아카이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기관리팀(Crisis Management Team)을 구성하여 기업의 청산, 열악한 기록 관리 및 보존 등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2009년에 구성된 이 팀은 잉글랜드와 웨일스(2009), 스코틀랜드(2011)에서 각각 발간한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에 따라 7명의 기업 아키비스트 및 역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BAC, n.d.f; BAC, n.d.g).

아울러 BAC는 주요 국가 산업에 대한 기록

조사 작업을 착수했다. 이러한 조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확인하여 보존을 보장하고 연구자와 재계에 귀중한 원천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건축 및 건설산업에 대한 기록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초 1년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았던 이 사업은 BAC와 TNA 간의 파트너십으로 2013년 마무리됐다(BAC, *n.d.h*). 이 같은 지원활동은 BAC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이 밖에 BAC는 연간보고서와 연례회의록을 홈페이지 상에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BAC는 2009년 TNA와 컨소시엄을 맺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기업 아카이브를 위한 5개년 계획(a five-year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in England and Wales)』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의 후속사업으로 기업이 아카이브 컬렉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별도의 홈페이지 'Managing Business Archives'(managingbusinessarchives.co.uk)를 구축하여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기업뿐 아니라, 기업 아카이브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카이브 구축부터 자금 지원, 법률 문제, 보존 방법,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TNA, 2009b). 이와 함께 BAC는 'Business History Explorer'(businesshistoryexplorer.co.uk)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영국 기업과 산업의 역사에 관한 온라인 서지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3.2.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의 주요 역할은 스코틀랜드의 기업 및 산업과 관련된 기록의 수집에 대한 '기록 조사

(archives surveying)'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록 조사관(Surveying officer)을 주축으로 1977년부터 시작한 이 작업은 2011년까지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의 보조금과 기업 및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4년부터는 스코틀랜드의 기술 기록(technical records)을 관리하는 자선단체(charitable foundation)인 벨리스트 트러스트, 글래스고 대학 아카이브 서비스, BACS 및 에버딘 대학의 'Capturing Energy' 프로젝트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다(BACS, *n.d.c*; BACS 위원, 이메일 인터뷰, 2019.09.30).

BACS 위원(이메일 인터뷰, 2019.10.01)에 의하면, 기록 조사관은 서로 다른 기업과 기업 아카이브에 파견된다.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훈련은 없지만, 모든 기록 조사관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은 아키비스트들이다. 참고로 2017년 스코틀랜드 기업기록원 조사관 제도는 40주년을 맞이하였다(Scottish archives, 2017). 기록 조사의 목적은 지속되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록의 관리자들과 현재와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기업 기록 조사작업 후에는 기업 기록의 상세 목록, 기록의 보관 및 역사적 가치 평가, 기업에서 보관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권장사항, 아카이브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권장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한다. 추가적으로 기업 자산으로서의 아카이브에 대한 조언 및 지침, 기업의 역사와 유산에 관한 연구, 기업의 기념일 및 전시회 준비, 브랜드 교육, 참여 및 정체성을 위한 자원 생성, 브랜드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언 및 지

침,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아카이브의 장기 보존에 대한 조언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다(Business archives surveying officer, *n.d.*). 이러한 기업 기록 조사 작업에 관한 사례연구는 기업 아카이브 조사관 홈페이지(surveyingofficer.co.uk)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BACS는 영국의 BAC와 마찬가지로, '기업 기록의 위기관리'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BACS는 2009년부터 영국 BAC 위기관리팀과 협력해 왔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스코틀랜드 대표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다(BACS, *n.d.d.*). 기업 기록 조사작업과 기업 기록의 위기관리 활동은 벨러스트 트러스트의 홈페이지(ballasttrust.org.uk/about-us)에 게재된 연간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BACS는 영국의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기록화 프로젝트인 'Capturing the Energy'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과 에너지 자본의 중심 도시인 애버딘(Aberdeen)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요 업적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록을 선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ACS는 석유 및 가스 사업자, 규제 기관, 특정 기술을 위한 전문 기관,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망 회사 등 4개 조직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하여 2010년 3월 기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Capturing the Energy' 홈페이지(capturing-the-energy.org.uk)와 이 사이트 내 애버딘 대학의 'Oil & Gas Archive' 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있다(BACS, *n.d.e.*).

아울러 BACS는 2011년 발간한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100개 유한회사의 기록 수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856년 '기업법(Companies Act)'에 따라 결성된 유한회사들은 스코틀랜드 역사상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였으며, 이들의 아카이브는 역사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 목표는 영국 비즈니스 등록당국인 'Companies House'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기업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기업의 역사와 생존 기록을 상세히 기록한 온라인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다(BACS, *n.d.f.*). BACS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와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BACS는 기업 내에서 1인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아키비스트를 위하여 'Corporate Connection'이라는 소규모 세미나를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Meet the Archivists'라는 행사를 통해 관련 아키비스트들 간의 친목행사를 지원했다(BACS, *n.d.g.*).

3.2.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는 홈페이지의 '협의회 개요' 메뉴에 BAA의 대략적인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절에서 다룰 BAA의 지원활동으로 먼저, BAA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내 기업 역사관, 박물관 형태의 아카이브 견학행사를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행사 안내' 메뉴에서 지난 활동과 예정 중인 견학행사를 공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40 여건의 견학행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BAA는 수시로 다른 단체와 함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공동 개최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ARMA

International 도쿄 지부 주최의 심포지엄을 후원하였다. 또한 회원 기업의 기획전시, 심포지엄 등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BAA 사무국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2019.09.30.).

이 밖에도 BAA는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를 위해 '협의회 개요>명단' 메뉴에서 회원 및 임원, 관련 우호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회원/전문가의 목소리' 메뉴를 통해 관련 분야의 행사 소식과 회원 및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를 게시해 놓은 '외부 링크집' 메뉴도 운영 중이다. 한편 회원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에 송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3.2.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의 회장(이메일 인터뷰, 2019.08.11)에 의하면, SBA는 ICA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 중 하나로서 할당된 예산이 없고, SBA 홈페이지 자료는 파리에 사무국을 둔 ICA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는 활발하지 않다. 제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회원 명부(Members of SBA)의 상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름, 직책, 국적, ICA 회원정보(ICA내 직책, 회원 유형 등), 연락처(직장명, 홈페이지, 개인 SNS 및 이메일 등)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의 기회를 열어 두었다. 또한 SBA 홈페이지를 통해 본과의 소식(SBA Latest News)이나 주요 자료(SBA Resources), 유용한 사이트의 링크(SBA Useful Links)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협의회나 본과의 활동이나 자료에 비해 내용이 빈약하며, 주로 SBL 시기의 회의록이나 행사 등으로 최신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

3.3 교육

3.3.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학술대회 격인 BAS 콜로키움 행사를 SAA 연례회의 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콜로키움 행사의 연설은 매년 SAA에 의해 녹화되고 있으며, 유료로 영상을 구입하여 볼 수 있다. BAS 前 회장과와의 이메일 인터뷰(2019.08.26)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행사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9년 콜로키움에서는 'Business Archivists: Masters of All'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비스트들이 브랜드 전달자, 콘텐츠 제작자, 스토리텔러로 부상함에 따라, 직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셜미디어, 전시, 정보분석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밖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콜로키움에서는 'Bringing Transparency to Closed Collections'라는 주제로, 기업 기록의 비공개성과 관련하여 기업문화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의 투명성을 논의하였다. 2017년 콜로키움에서는 'Finding Inspiration in Your Company History Using Media and Design'이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브와 광고 대행사가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을 개발한 Coca-Cola, KFC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를 창의적으

로 활용하여 기존 제품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등과 함께 활용 자원, 디자인 팀 및 마케팅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노하우를 제시했다.

행사 개최 후 운영 위원회는 매년 회원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합하여 콜로키움을 개선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콜과 분기별 뉴스레터를 통해 콜로키움의 다양한 주제를 모집하고, 회원들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BAS 前 회장, 이메일 인터뷰, 2019.08.26.).

한편 SAA에서는 아카이브와 다른 기관에서 주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된 교육으로 'Business Archives ... Establishing and Managing an Archives'라는 3일 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BA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에서는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3개의 기업 아카이브를 둘러보고, 아카이브와 기업 도서관, 기록관 및 정보센터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 기업 아카이브 설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SAA, n.d.b).

3.3.2 영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 역시 매년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BAC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퍼런스 공지사항(BAC, n.d.i)을 토대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컨퍼런스 행사를 정리하였다.

먼저 BAC는 2018년 'Can you believe it...? Business Archives and trust'이라는 주제로 ICA-SBA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주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기업 기록에 있어서 중

이 기록과 디지털 기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다루었다. 2017년에는 'Change the record'라는 주제로 기록 자체의 다양성과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적으로 기록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016년에는 'Branching out: the rewards and realities of diversifying your service'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브가 기존 아카이브 기능을 넘어 이용자에게 관련성이 높은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3.3.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도 매년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BACS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퍼런스 공지사항(BACS, n.d.g)을 토대로 그동안 이루어진 컨퍼런스 행사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9년에는 'Film in Business Archives'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브 컬렉션 내 영화 자료 관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018년 6월에 스코틀랜드의 도시 페이즐리의 산업과 문화 유산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고 같은 해 10월에는 'Art and Design in Business Archives'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각각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Celebrating 40 years of the Surveying Officer'라는 주제로 기록 조사관(surveying officer) 제도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록 조사관이 현재 기업 아카이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역할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BACS는 'training day'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아키비스트를 위한 강좌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3.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는 협의회 내 소연구회를 조성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사(會社史) 세미나’, ‘기업 아카이브의 날 심포지엄’, ‘자료관리연수세미나’, ‘초서 한자 연구회’, ‘박물관 세미나’ 등이 있다. 먼저 ‘회사사 세미나’는 사사(社史) 편찬 연구 모임으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기업 아카이브의 날 심포지엄’은 매년 11월 초에 개최하는 모임으로,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된 다양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평균 참가인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자료관리연수세미나’는 기업 기록의 보존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세미나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2019년 9월에는 ‘종이 자료의 보존 및 수리에 강한 강좌가 이어졌다. ‘초서 한자 연구회’에서는 에도 시대 및 메이지 시대 무렵의 수필 사료를 해독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도쿄와 오사카 두 곳에서 매달 1회씩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 세미나’는 기업의 오프라인 아카이브와 뮤지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세미나로 견학 행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BAA 사무국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2019.10.15.).

또한 BAA는 매년 ‘기업 아키비스트 연수강좌(ビジネスアーキビスト研修講座)’를 도쿄와 간사이지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도쿄에서는 24회까지 진행하였으며, 기초코스(4회)와 응용코스(1회)로 나누어 약 3개월간에 걸쳐 강좌가 열리며, 간사이 지방에서는 1일 코스의 강좌로 진행된다. 이 강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좌비를 받고 있으며, 수료 후 수료증이 지급된

다(BAA, n.d.). 이밖에 BAA는 2011년 도쿄에서 ICA-SBA와 함께 공동개최한 컨퍼런스를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컨퍼런스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3.3.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는 국제기록관리협회의 분과인만큼 컨퍼런스 행사를 여러 국가에서 개최해 왔다. SBA 홈페이지와 SBA 회장과 의 이메일 인터뷰(2019.09.01~03)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컨퍼런스 행사를 살펴보았다.

2019년에는 ‘Business Archives & the Next Gold Rush’라는 주제로, 기존의 기업 아카이브의 모범적 관행에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미래의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션으로 꾸며졌다. 2018년에는 영국 BAC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7년에는 스톡홀름과 뮌헨에서 연이어 기업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업 아카이브의 미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SBA 회장(이메일 인터뷰, 2019.08.26)에 의하면 SBA는 2010년 이전에는 ICA의 연례회의와 연계하여 소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본격적인 컨퍼런스는 2010년부터라고 간주하였다. SBA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글로벌기업 아카이브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글로벌기업이 지역 지향적이거나 본사 1개를 가진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아카이빙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BA는 2010년에 개최한 컨퍼런스를 SBA(당시 SBL) 컨퍼런스의

공식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3.4 출판

3.4.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출판물로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는 1984년에 처음 발행되었는데 이전의 뉴스레터를 최대한 찾아 PDF 버전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2000년 제17권 2호부터는 온라인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2015년 5월호부터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도구인 메일침프(MailChimp) 방식의 온라인 버전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부터 분기별로 별도의 사이트(basnewsonline.com)를 운영하며 회원 유무에 관계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AS, *n.d.g*).

3.4.2 영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도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전시회, 출판물, 강좌, 위원회 행사 및 서비스에 관한 주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는 2001년부터 제작하였으며 먼저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후, BAC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BAC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Business Archives』 저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데이터베이스(businessarchivesjournals.org.uk)를 운영하고 있다. 저널은 기업 기록관리 및 기업 역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기사를 실고 있으며, 새로운 관련 문헌의 서지 목록과 기업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업 기록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BAC, *n.d.j*).

아울러 그동안 수행된 설문조사와 출판된 단행본의 리스트를 BA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 컨퍼런스의 연설과 토론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Collecting Business Archives(2015), Business Archives Access Guidance Notes(2014)와 같은 지침과 업무절차 문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BAC 연간 결산보고서(BACS, 2019)에 의하면, 2019-2020년 업무 계획으로 2009년에 발행된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England and Wales)』 보고서를 발행 10주년을 맞아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3.4.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는 전문 역사학자 등의 논문이 실린 『Scottish Business and Industrial History』 저널을 1977년부터 현재까지 2년에 1회씩 발행하고 있다. 이 저널은 스코틀랜드의 과거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는 홈페이지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ACS 위원, 이메일 인터뷰, 2019.10.01.).

아울러 BACS와 벨러스트 트러스트는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과 연계하여 스코틀랜드 기록 보존협의회(the Scottish Council on Archives)를 대표해 2011년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in Scotland』 보고서를 발간했다(BACS, 2011). 그 밖에 출판물로는, 앞서 3.2.3에서 서술한 ‘Capturing the Energy’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2010년 출판된 『Scoping Study of the UK Offshore Oil & Gas Industry's Historical Records』 보고서가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3.4.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는 회원을 위한 뉴스레터를 연 4회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70호까지 발행되었다. 뉴스레터에는 BAA가 주최하는 세미나, 견학회, 연수강좌 등의 행사 안내 외에도 기업 사료 관련 논고 등을 게재하고 있다. 뉴스레터는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며, 과월호 목차만을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BAA는 『기업과 사료(企業と史料)』 저널을 1987년부터 연 1회 발행 중이다. 이 저널은 2019년 현재 14집까지 발행되었으며 일반인에게도 판매된다. 아울러 BAA는 기업 경영자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아카이브즈의 이론과 실천(企業アーカイブズの理論と実践)』 단행본을 2013년 발간했다(BAA, *n.d.e*).

3.4.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에서 출판한 최근의 단행본으로 2013년 『Crisis, Credibility and Corporate History』가 있다. 이 책은 현재 SBA 회장 Bieri, A의 저서로, 기업, 학계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 기업의 역사를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기술하였으며 IBM, Maersk, Roche와 같은 주요 국제 기업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SBA, *n.d.c*).

다음으로 SBA는 SBL 당시(2014년 분과명 개칭), ICA가 2008년 6월~2009년 3월 수행한 글로벌 기업 아카이브 조사 기록보관소 조사와 2004년 미국의 A*CENSUS(Archival Census and Education Needs Survey in the United States) 조사를 비교 정리하여, 2010년 『Global Business Archives Benchmarking Analysis: A Follow-up Study』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기업 아카이브 현황과 함께 아웃리치 사업의 현황과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해외 13개국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법, 정의, 기관, 협회 및 조직, 가이드, 참고문헌 등으로 이루어진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개정판은 나오지 않았다. 2000년에는 『Guide to Sources of Inform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 Spain, 1780-1914』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19세기 스페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록이 담긴 보존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SBA, *n.d.d*).

위의 해외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 분석 내용을 토대로 각 조직의 기능적인 면을 비교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조직별 지원활동을 살펴보면 편차는 있지만, 각 조직별로 특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SAA의 BAS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제공과 업데이트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기업 아카이브 구축 사전단계에서 참고할 자료부터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내부 홍보자료나 내부 지침 등의 공유까지 회원들의 참여로 구축한 자료들이 상당하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 명단과 상세 프로필 등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이를 실무나 연구활동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표 3〉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기조직의 기능 비교

구분	지원	교육	출판
미국 SAA - B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아카이브 지원 도구 운영 - 기업 아카이브 관련 자료 지원 - 회원 기업 아카이브 홍보자료 및 내부지침 제공 - 기업 아카이브 명단 제공 - 임원 및 회원 명단 제공 - 리퍼지토리 프로파일 제공 - 소셜미디어&웹크 제공 - 연간보고서, 연례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BAS 플로키움 운영 - 기업 아카이브 관련 교육 - Business Archives ... Establishing and Managing an Archives' 운영(SAA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뉴스레터 제작 및 별도 사이트 운영
영국 - B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즈워드상 수여 - 기업사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 기업 기록물 목록작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 기업 기록의 위기관리 프로젝트 수행 - 주요 국가산업에 대한 기록 조사 수행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기업 아카이브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별도 홈페이지 운영(Managing Business Archives/Business History Explorer) - 임원 명단 제공 - 연간보고서, 연례회의록 회의록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BAC 컨퍼런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뉴스레터 제작 및 회원 이메일 배포, 홈페이지 업데이트 - 『Business Archives』 저널 발행(1965~2014) 및 별도 데이터베이스 운영 - 2014~2015년 컨퍼런스 자료 기반, 지침 및 업무절차 문서 제공 - 2020년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England and Wales)』 보고서 개정판 발간 예정 - 기타 설문조사 및 출판 단행본 다수
스코틀랜드 - BA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조사 작업 수행(기록 조사관 제도 운영) - 기업 기록의 위기관리 프로젝트 수행 - 'Capturing the Energy' 프로젝트 수행 - '100개 유한회사 기록 수집' 프로젝트 수행 - 소규모 세미나 운영 - 임원 명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BACS 컨퍼런스 운영 - 기업 아카이브 관련 교육 'training day'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ttish Business and Industrial History』 저널 발행(1977~계속) - 2011년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in Scotland』 보고서 발행 - 2010년 『Scoping Study of the UK Offshore Oil & Gas Industry's Historical Records』 보고서 발행('Capturing the Energy' 프로젝트 결과)
일본 - B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대상 기업 아카이브 견학 행사 실시 - 기타 단체 행사 후원 - 회원 총회 의사록, 회원 송부 - 임원 및 회원, 우호단체 명단 제공 - 임원 및 회원, 우호단체 명단 - 회원/전문가 게시판 운영 - 외부 링크집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연구회 다수 운영 - 기업 아카이비스트 연수강좌 운영 - 2011년 BAA 컨퍼런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회 뉴스레터 제작 및 회원 배포 - 『기업과 사료(企業と史料)』 저널 발행(1987~계속) - 2013년 『기업 아카이브즈의 이론과 실천(企業アーカイブズの理論と実践)』 단행본 발행
ICA - S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회원 명단 공개 - 임원 및 회원 명단 - 분과 소식, 주요 자료, 유용한 사이트 링크 제공(업데이트 활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SBA 컨퍼런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Crisis, Credibility and Corporate History』 단행본 발행 - 2010년 『Global Business Archives Benchmarking Analysis: A Follow-up Study』 보고서 발행 - 2004년 『Business-archives-in-international-comparison』 보고서 발행 - 2000년 『Guide to Sources of Inform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 Spain, 1780-1914』 보고서 발행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BAC는 별도 기금 조성을 통한 워드상 수여, 보조금 사업, 연구비 지원 사업 등이 단연 눈에 띈다. 이들 활동은 기업 아카이브 관계자 뿐 아니라 유관 학계나 기업에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업 기록의 위기관리 프로젝트 및 주요 국가산업에 대한 기록 조사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기업 아카이브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와 사례연구를 제공하며, 영국 기업과 산업의 역사에 관한 온라인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AC는 1934년 설립되어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 아카이브 독립 조직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구축된 정보와 노하우가 정교하게 관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BACS는 기록 조사관 제도라는 독자적인 제도를 통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스코틀랜드의 기업 기록 조사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아카이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조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원활동으로 스코틀랜드 국가 차원에서 기업 및 산업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자료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BACS는 Capturing the Energy, 100개 유한회사 기록 수집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BAA는 회원 대상 기업 아카이브 견학행사나 타 단체의 행사 후원 등 오프라인 활동과 회원간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반면 ICA의 SBA는 예산 등의 문제로 홈페이지 운영이나 기타 활동 면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활동을 살펴보면, 일본의 BAA를 제외한 각 조직들은 매년 콜로키움, 컨퍼런스와 같은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관련 실무와 연구의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조직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AS는 SAA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 아카이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BACS는 비정기적으로 기업 아카이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BAA는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소규모 연구회와 연수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더욱 세분화된 주제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활동을 살펴보면, ICA의 SBA를 제외한 각 조직들은 각 조직의 소식을 전달하고, 회원들의 논고 등을 게재하는 수단으로 뉴스레터와 저널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한 컨퍼런스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단행본 및 보고서 등으로 발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4. 시사점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들은 그 역사가 증명하는 만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판활동 등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 사례들은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의 실무와 연구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해외의 개별 기업 아카이브가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를지라도 이들 기업 아카이비스트들을 공

동체로 이끌어 개별 기업의 차원이 아닌, 기업 아카이브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외와 같이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기업 아카이브들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아카이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 현실에 맞는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 및 기능적인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3장에 열거한 외의 각 조직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함께 정리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의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직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구축 초기, 중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째, 처음부터 영국의 BAC와 스코틀랜드의 BACS, 일본의 BAA와 같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의 분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기록전문가 단체로, 해당 협회 내에 '분과규정'을 마련해두고, 분야별 분과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외의 각 조직을 살펴본 결과, 현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직의 구축 방법이며, 미국의 SAA 산하에 BAS 분과 및 ICA 산하 SBA 분과와 같은 조직 구축 모델이다. 협회 분과규정(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에 따르면, 분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분과설립신청서 및 분과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음으로써 분과 설립이 완료된다. 현재 협회 산하에는 5개 분과가 있으며, 이들 분

과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당해 연도 업무활동 보고와 다음 해 업무계획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협회의 분과 활동을 목표로, 분과 회원 결성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 설립 승인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초기 회원을 중심으로 기존 분과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정기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 교육,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의 기업 아카이브 현황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외부로 공개되어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조사가 되었으므로, 협회 분과활동을 통한 공식적인 현황 집계는 필요할 것이며 이는 분과활동을 이어가는 원천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해외 전문가조직에서는 회원 명단뿐 아니라, 국가 내 기업 아카이브의 명단을 공개하여 이를 해당 분야의 실무와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나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 어느 기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보존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기업의 기록관리는 현재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며, 기록들은 기업의 정보자산으로 비공개를 지향할 수밖에 없기(남재우, 김장환, 2018) 때문에, 초기 공식적인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현황 및 통계 연구는 본 분과의 향후 주요 활동과 확장성을 기증해주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중단기 활동사항으로 국가기록원, 유관 학회 및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한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에

따라,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및 시행령 제80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을 근거로 민간기록물 수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수집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수집대상의 시기적 제한은 없으나 근현대 생산 기록물을 중심(국가기록원 *n.d.*)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국내 근현대 산업사의 발전과 함께 한 기업 기록인 만큼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사업의 한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BAC와 스코틀랜드의 BACS는 해당 국가의 국가기록원과 협업하여 보고서 발간,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많은 유관 학회와의 협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 기록관리를 기록관리 학계에서만 아니라, 기록이 갖는 주제적 특성에 맞춰 경영사, 산업사, 경제사 등의 관련 학회와 협력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기록 및 아카이브뿐 아니라, 유관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관련 우수논문 및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기업 아카이브의 영역은 물론 관련 학계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BAA는 타 단체의 행사를 후원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BAC는 연구비 지원 및 보조금 사업을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또한 분과의 기업 기록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기업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연구자와 특정 기업의 기록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 기록에 접근하는 유익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컨퍼런스 등의 학술대회 개최 시, 회원 기업의 후원을 독려하여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모든 조직들은 회원 기업의 후원으로 콜로키움, 컨퍼런스와 같은 학술대회 등을 주최하고 있다.

셋째, 최종적으로는 영국의 BAC와 스코틀랜드의 BACS, 일본의 BAA와 같이 독립 조직으로 국내 기업 아카이브 협회(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의 각 조직들은 설립 이후 오랜 시간동안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를 이루어 왔다. 또한 여러 유관 단체와 함께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이들 조직의 회원 명단을 보면, 일찍이 기업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기록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업이 상당수이며, 대부분 아키비스트를 고용하여 운영 중이다.

이처럼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아카이브의 노력뿐만 아니라 협회의 분과 규모를 넘어 독립적인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율적으로 출범한 여타 전문가조직들의 설립 목표와 존재 이유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이익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SAA의 BAS와 ICA의 SBA도 협의회의 한 분과로 명맥을 이어 나가고 하지만, 모기관 자체가 북미 전체를 다루거나 국제적인 곳으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립적인 조직을 구축한 이후에는 협회의 분야에서 수행해 왔던 모든 기능적인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끌어온 국가기록원, 유관 학회 및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협력을 토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앞서 서술한 해외의 각 조직들의 광범위한 활동들은 대부분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SAA의 BAS와 같이 실용적이고 유용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영국의 BAC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하는 등 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ICA의 SBA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장기간 고민하며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면 더욱 이상적인 조직의 운영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학술대회 운영, 실용적이고 유용한 자원의 제공이 기반이 된다면 각종 보고서와 단행본, 뉴스

레터 등 출판활동도 부가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영국의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스코틀랜드의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일본의 기업 사료협회(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5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지원 전문가조직의 조직 형태와 기능적 역할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및 국내 기업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타진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와 함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미국 기록전문가협회(SAA)의 탄생 배경과 역

<표 4> 국내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구축 단계별 조직 형태 및 기능적 역할

구분	조직	기능	비고
초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분과 형태로 설립	- 분과 회원 결성 - 분과 설립 승인 - 분과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정기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 교육, 견학 행사 등 개최 -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현황 및 통계 연구	미국 SAA-BAS, ICA-SBA와 같은 분과 모델
중단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분과 형태 유지	- 국가기록원, 유관 학회 및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개시	
중장기	독립 조직으로 설립	- 국가기록원, 유관 학회 및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협력을 토대로 장기 프로젝트 실시	영국 BAC, 스코틀랜드 BACS, 일본 BAA와 같은 독립 조직 모델

할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문가조직의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이후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을 해당 홈페이지와 문헌 연구,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외의 각 조직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전문가조직의 조직구성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판활동의 기능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 사례들은 이제 걸음마를 디딘 국내의 기업 기록관리 환경에서는 자칫 요원한 길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업 기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략 수립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전문가조직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시사점이 종래에는 국내 기업 아카이브 발전 방안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고선미 (2002). 포스코 기업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록관리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 학대학원.
- 김금이 (2008). 한국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내 기록관리 정착 방안: 프랑스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명훈 (2017). 기록과 지식·정보: 기록의 지식, 정보 자원화를 위한 시론적 분석. 기록학연구, 54, 45-79. <https://doi.org/10.20923/kjas.2017.54.045>
- 김영애 (2003). 독일 경제아카이브즈의 형성과 유형. 기록학연구, 8, 137-180.
- 김유리 (2009).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기록관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익한 외 (2000).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기업기록관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김재남 (2002). 사서편찬을 중심으로 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화경 (2007). 기업 사료의 수집평가방안 연구: 메리츠화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5, 219-262.
- 남재우, 김장환 (2018). 국내 기업 보존기록에 관한 기초 연구. 기록학연구, 55, 135-163. DOI: 10.20923/kjas.2018.55.135
- 박용부, 김태수 (2011).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83-101.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83>
- 설문원 (2015). 기업 소송에 대비한 정보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세도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25-354. DOI: 10.16981/kliss.46.4.201512.325
- 설문원, 이해인 (2016).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7-30. DOI: 10.14404/JKSARM.2016.16.4.007
- 이철편 (2016). ISO 15489의 개정이 향후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 기록인, 37, 46-55.
- 이현용 (2019). 기업역사기록관리 사업사례, 한국기록학회 제128회 월례발표회.
- 이현정 (2015). 기록학 실천주의의 기원, KARMA, vol.2, 40-44.
- 임중철 (2007). 기업사료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정기애, 남영준 (2007). KM 거버넌스 기반의 기업 전자기록물 관리 최적화 전략 연구. 정보관리연구, 38(3), 161-181. <https://doi.org/10.1633/JIM.2007.38.3.161>
-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한국기록리학회지(2001년-2010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67-391. <https://doi.org/10.4275/KSLIS.2011.45.2.367>
- 주서진 (2008). 기업아카이브 역할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학교 대학원.
- 최정애 (2005). 기업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사시를 편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의 국어대학교 대학원.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Cox, Richard J. (2001). Managing Records As Evidence and Information. Unite States: Quorumbooks.
- Hidy, R. W. (1966). Business Archives: Introductory Remarks. The American Archivist, 29(1), 33-36.
- ICA-SBL (2004).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 Leckey, Susan (2015). The Europa Directory of Literary Awards and Prizes. New York: Routledge.
- Matsuzaki, Yuko (2007). Business Archives in Japan: An Overview and Access Issues. Japan-U.S. Archives Seminar.
- Scottish archives (2017). BROADSHEET, Summer 2017, 24.
- TNA (2009a).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England and Wales).
- TNA (2009b). Corporate Memory: A guide to managing business archives.
- Tousey, B. H. & Adkins, E. W. (2007). Access to Business Archives: U.S. Access Philosophies. Japan-U.S. Archives Seminar.
- Wirth, Ken (1997). Advocating Business Archives. SAA BAS Newsletter, August 1997.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n.d.) 민간기록물 소개. <http://www.archives.go.kr/next/data/pepoleRecode.do>

표준대국어사전 (*n.d.*).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e099493b5da4282b3fa87c1e03e229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선언문.

<https://www.archivists.or.kr/37?category=33519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 분과규정. <https://www.archivists.or.kr/639?category=423421>

BAA (*n.d.a.*). 企業史料協議會のご紹介. Retrieved August 16, 2019, from

<http://www.baa.gr.jp/profile.asp>

BAA (*n.d.b.*). 沿革. Retrieved August 16, 2019, from <http://www.baa.gr.jp/profile01.asp>

BAA (*n.d.c.*). 名簿. Retrieved August 16, 2019, from <http://www.baa.gr.jp/profile04.asp>

BAA (*n.d.d.*). 報告〉ビジネスアーキビスト研修講座. Retrieved August 18,

2019, from http://baa.gr.jp/news_h.asp?NoteAID=14

BAA (*n.d.e.*). 企業史料協議會ニューズレター. Retrieved August 16, 2019, from

<http://baa.gr.jp/kankobutu.asp>

BAC (2019). Business Archives Council Annual Accounts 2019.

BAC (*n.d.a.*). About the Business Archives Council. Retrieved August 14,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bout/aboutintro/>

BAC (*n.d.b.*). BAC Executive. Retrieved August 14,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bout/bacexecutive/>

BAC (*n.d.c.*). Business Archives Council Activities and Events.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ctivitiesobjectives/>

BAC (*n.d.d.*). BAC Bursary for Business History Research.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ctivitiesobjectives/bursary/>

BAC (*n.d.e.*). BAC Cataloguing Grant for Business Archives.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ctivitiesobjectives/catgrant/>

BAC (*n.d.f.*). Business Archives at Risk.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ctivitiesobjectives/risk/>

BAC (*n.d.g.*). Crisis Management Team case study.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managingbusinessarchives.co.uk/news/2013/10/crisis-management-team-case-study/>

BAC (*n.d.h.*). Surveys.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ctivitiesobjectives/surveys/>

BAC (*n.d.i.*). Annual Conference.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ctivitiesobjectives/conference/>

- BAC (*n.d.j*). Journals.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publications/regular/>
- BACS (2011).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in Scotland. Retrieved August 27,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nationalstrategyforbusinessarchives/>
- BACS (*n.d.a*). A brief history of the BACS. Retrieved October 13,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aboutus/abriefhistoryofthebacs/>
- BACS (*n.d.b*). Executive Committee. Retrieved Sep 11,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aboutus/executivecommittee/>
- BACS (*n.d.c*). Undertaking Archive Surveys. Retrieved Sep 15,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archivesurveysrescuework/archivesurveys/>
- BACS (*n.d.d*). Rescuing Archives. Retrieved Sep 15,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archivesurveysrescuework/rescuingarchives/>
- BACS (*n.d.e*). Capturing the Energy: Recording the UK Offshore Oil & Gas Industry. Retrieved Sep 17,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capturingtheenergy/>
- BACS (*n.d.f*). Scotland's Hundred Oldest Companies Project. Retrieved Sep 17,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scotlandshundredoldestcompanies/>
- BACS (*n.d.g*). Capturing the Energy: Recording the UK Offshore Oil & Gas Industry. Retrieved August 9, 2019, from <https://www.gla.ac.uk/myglasgow/archives/bacs/events/>
- BAS (*n.d.a*). Mission. Retrieved August 9,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mission>
- BAS (*n.d.b*). Section Officers and Position Descriptions. Retrieved August 9,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section-officers-and-position-descriptions>
- BAS (*n.d.c*). Elections. Retrieved August 9,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elections>
- BAS (*n.d.d*). Advocating Business Archives Toolkit. Retrieved August 9,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advocating-business-archives-toolkit>
- BAS (*n.d.e*). Business Archives Resources. Retrieved August 21,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business-archives-resources>

- BAS (*n.d.f*). Directory of Corporate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Introduction. Retrieved August 30,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directory-of-corporate-archives-in-the-united-states-and-canada-introduction>
- BAS (*n.d.g*). Newsletter Archive. Retrieved August 21,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newsletter-archive>
- Business archives surveying officer (*n.d*). SERVICES AND CHARGES. Retrieved Sep 19, 2019, from <http://surveyingofficer.co.uk/services-and-charges/>
- OSCR (2018). Annual Return Submission History. Retrieved October 1, 2019, from <https://www.oscr.org.uk/about-charities/search-the-register/charity-details?number=5256>
- SAA (*n.d.a*).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Retrieved August 9,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search/saasearch_glossary/business%20archives
- SAA (*n.d.b*). SAA Sections. Retrieved August 12,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sections>
- SAA (*n.d.c*). Business Archives ... Establishing and Managing an Archives. Retrieved August 27, 2019, from <https://www2.archivists.org/prof-education/course-catalog/business-archives-...-establishing-and-managing-an-archives>
- SBA (*n.d.a*). Section on Business Archives - SBA. Retrieved August 26, 2019, from <https://www.ica.org/en/section-on-business-archives-sba>
- SBA (*n.d.b*). SESSION 8.5 SECTION ON BUSINESS ARCHIVES. Retrieved August 27, 2019, from <https://www.ica.org/en/8-achievements-ica-network-2012>
- SBA (*n.d.c*). ICA publications: Launch of a new special series!. Retrieved August 29, 2019, from <https://www.ica.org/en/ica-publications-launch-new-special-series>
- SBA (*n.d.d*). SBA Resources. Retrieved August 27, 2019, from <https://www.ica.org/en/sba-resourc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ung-Ai (2005).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Chung, Yeon-Kyoung (2011). A Reference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2001-2010,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367-391.
<https://doi.org/10.4275/KSLIS.2011.45.2.367>
- Jeong, Ki-Ae & Nam, Young-Joon (2007). Effective Corporat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with KM Governance.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8(3), 161-181.
<https://doi.org/10.1633/JIM.2007.38.3.161>
- Joo, Seo-Jin (2008). A study on introduction of corporate archival programs according to a change in corporate archive's rol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im, Hwa Kyoung (2007). A Case Study of a Acquisition & Appraisal Policy of Business Archives: With a Focus on Meritz.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219-262
- Kim, Ikhan etc. (2000).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nd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 Kim, Jaenam (2002). The key function of the business archives focusing on compilation of the company history.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Kim, Keum Ei (2008). A study on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in enterprise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nterprises: focused on business records management in Franc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im, Myoung-hun (2017). Record, Information, Knowledge: A Preliminary Study for Knowledge & Information Resources of Record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54, 45-79.
<https://doi.org/10.20923/kjas.2017.54.045>
- Kim, Young-Ae (2003). The formation and types of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8, 137-180.
- Kim, Yu-Ri (2009). Study on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from Public Point of View -Focused on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in the U. S. A.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o, Sunme (2002). The analysis of archival science for the busines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POSCO.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Korea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er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eoksabipyungsa.
- Lee, Gemma (2016). Effects of ISO 15489 Amendments on Record Management in the Future. *Kirokin*, 2016 WINTER Vol.37, 46-55.
- Lee, Hyunjung (2015). Origin of Archival Activism. *KARMA*, vol.2, 40-44.
- Lee, Hyunyoung (2019).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Business History. *Korea Society*

- of Archival Studies 128th a monthly presentation.
- Lim, Jong-Chul (2007). A Developing Framework for Corporate Archives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Nam, Jae-woo & Kim, Jang-hwan (2018). A Preliminary Study on Business Archives in Korea.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55, 135-163. DOI: 10.20923/kjas.2018.55.135
- Park, Yong-Boo & Kim, Taesoo (2011). A Study on the Model for Construction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83-101.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83>
- Seol, Moon-won & Lee, Haein (2016). Busines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4), 7-30. DOI: 10.14404/JKSARM.2016.16.4.007
- Seol, Moon-Won (2015). Building Corporate Information Governance to Prepare for Litigation: Practical Implication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25-354. DOI: 10.16981/kliss.46.4.201512.325

